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파룬궁을 사고라고 결정했다고 여기는데 기실은 그렇지 않다. 1999년 6월 10일, 강택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권력을 람용하여 국가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전국성적인 공포조직인 “610 사무실”을 조직했고 그해 10월 25일에 불란서 기자의 채방을 접수할 때 강택민은 <파룬궁은 사고>라고 제일 처음 제출했다. 이튿날, 인민일보에서 “파룬궁은 사고”라는 사론이 발표되었다. 이 사론은 법률이 아니다. 10월 30일, 강택민의 강압하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는 <사고조직을 금지하고 사고활동을 방지하고 징벌할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파룬궁은 사고라고 말하지 않았다.

파룬궁은 “쩐싼런(眞善忍)”으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며 5 조공법으로 신체도 정화했다. 1998년, 중국의학계에서 파룬궁학원에 대해 치료효과를 조사한 결과 총 유효률은 98%의상에 도달했다.

지금 전세계 80 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1 억을 넘는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허지만 질투가 치밀어오른 강택민은 중공을 리용하여 <천안문분신사건> 등을 위조했으며 파룬궁에 사고라는 모자를 씌우고 파룬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참혹하게 박해했다. <전법륜>과 <9 평공산당>을 읽어보았거나 파룬궁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파룬궁은 “사고”가 아니라 “진선인”을 수련하는 우주대법이라는것을 느끼고 있으며 중공의 “가(假),악(惡),투(斗)”본질을 간파할수 있으며 말끝마다 “마레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3 개대표”를 부르짖는 중공악당이야말로 공산주의독품으로 인민을 마취시키는 사고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률에 의거하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강택민집단과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헌법과 법률을 압도하는 범죄행위이다.

안휘성정협상무위원이 파룬궁박해를 정지할 것을 호소

안휘성정협상무위원 왕조균(王兆钧)은 (옆 사진)최근에 중국정부 지도자 후진토, 원자보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는 공개서한에서 오늘날 가장 긴박한 것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지시키며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전임 산서성급과학기술관원



가갑(贾甲)에 이어 또 한차례 공개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지시킬 것을 호소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대표를 파견해 파룬궁과 담판하며 파룬궁탄압의 결탁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을 건의했다.

샌프란시스코 집회에서 생체장기적출의 흉수를 징벌할 것을 요구

2007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미국 “인권성화관 심주”이다.

10월 27일, 샌프란시스코 각 인사들과 파룬궁학원들이 자스팅만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인권



성화릴레이가 전세계에 전달함을 성원했고 중공의 인권침해에 대해, 특히는 파룬궁학원들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의 만행을 질책했으며 동시에 흉수를 징벌할 것을 요구했다. 위 사진은 <반인류만행과 올림픽운동회는 공존할수 없다>라고 쓰여진 프랑카드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모습이다.

생명의 봄날



금년에 58 세인 장명양(张明阳)은 성격이 조폭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등산후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도박과 술담배에 정신이 팔려 새벽 2,3 시 되어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다보니 집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2005 년 6 월, 한 친구가 그에게 <전법륜> 책을 주면서 수련하라고 권했다. 그는 <전법륜> 책을 다 읽고나서 감격되어 말했다. <나는 이전에 책만 보면 졸음이 왔는데 웬일인지 “전법륜” 책을 보면 볼수록 보고싶고 박대정심한 법리를 깨닫게 되어 련속 몇시간 보아도 정신이 났다.> 그는 “쨌싼런”의 우주특성에 따라 자기를 대조하고 검토해보면서 나쁜 습관과 조폭한 개성을 개변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의 고혈압과 당뇨병은 간데 없이 사라지고 흰 머리칼이 검어졌다.



연변박해소식

■ 지난 10 월 31 일에 악경들이 단위에 와서 연길시 파룬궁학원 우해령(于海灵)은 불법적으로 랍치하여 연길시구류소에 가두었다.

■ 연길시 6 중 모 반급 한 교원은 학생들에게 “천안문분신사건” 대해 작문을 쓰게 하여 파룬궁을 모욕했다. 기실 이 사건은 중공이 위조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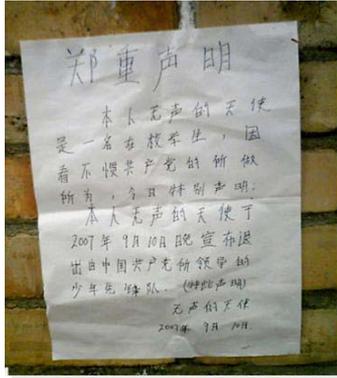
연변악보사례

⊗ 연변 주 610 사무실 부주임 강춘암(姜春岩)은 <반동조직인 파룬궁을 소멸하겠다>고 고아냈고 파룬대법사부님을 모욕, 중상했다. 지난 9 월 26 일에 그는 뇌경색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어 말도 똑똑히 하지 못했다. 지금 연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 연변주 610 사무실 전임부주임 김창권은 강택민집단의 지시를 받들고 파룬궁을 박해한 공범자이다. 지난 9 월 19 일 아침 뇌출혈에 걸려 수술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아 9 월 29 일에 재차 수술하고 입원치료 받고 있다.

무성천사(无声天使)의 성명

2004 년,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한 “9 평공산당”책이 발표된 후 진상을 알게 된 민중들은 공개적으로 “3 퇴”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혀놓았다. 위 사진은 간수성 모현의 한 길가의 집벽에 붙혀놓은 퇴대성명이다.



엄정성명

본인은 무성천사로서 모 학교의 학생이다. 공산악당의 행실이 끝사나워 특히 성명한다. 본인은 무성천사로서 2007 년 9 월 10 일 저녁에 중공이 령도하는 소선대에 퇴출함을 정중히 성명한다.

무성천사
2007년 9월 10일

각성한 중공 전임 부시장

반평생을 “혁명사업”에 몰두해온 모시 전임 부시장 두분은 자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중공악당은 그의 집단의 리익을 달성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해 민주, 제도, 법률, 법규, 인권에 대해 마음대로 해석하고 천하의 대악(大惡)을 범했다.

2. 지금 중국의 사회문제는 날로 돌출해지고 있으며 위기가 도처에 숨어있어 백성의 원한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공산당의 멸망은 곧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다.

3. 중공은 정권을 탈취한후 50 여년동안 중화민족에 대해 하늘에 사무친 죄행을 저질렀으며 전 인류에 대한 독해는 날마다 엄중해짐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의 최대소원은 정정당당하게 공산당조직에서 퇴출하여 선량한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